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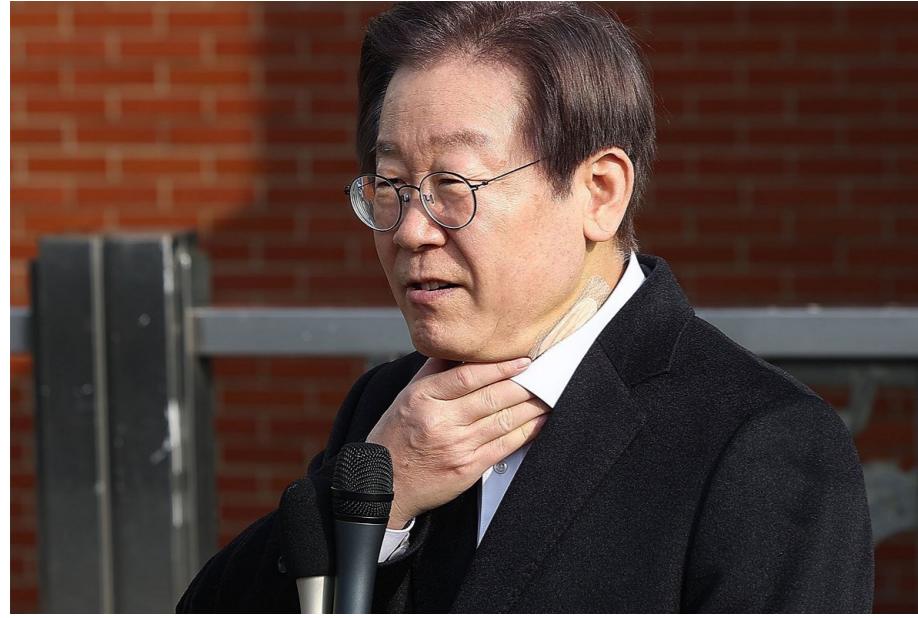


해양경찰청

제464호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이재명 대표, 입원 8일만에 퇴원 “상대 죽여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



목 만지며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끌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나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 데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서만 살겠다”며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걸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

선을 다해 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짙은 색 코트에 넥타이 없는 흰 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흉기에 찔린 왼쪽 목 부위에는 드레싱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병원에서 나와 운집한 인파를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 대표 퇴원 현장에는 지지자 등 20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풀리스라인’을 치고 접근을 막았다. 당 최고 위원들과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 실장 등이 퇴원 현장에 동행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과 관련, 기자들에게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 “이 대표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재판연기 등이 범행동기…배후세력 없어”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장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름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장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찔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 이윤성 기자

##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野와 협의할 준비돼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한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할지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현직 부장검사 등의 총선 출마 러시에 대해선 “현직 검사장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이성윤 검사장”이라며 “황운하법 이후 많은 게 흐트러졌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것 자체는 본인 권리”라고 말했다.

총선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의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선 “만약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 강명수 기자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행복풍성**

**문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 내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총선용 자금 실단’ 확보 행사 봇물

### 원외 인사 중심으로 잇단 북콘서트…현역 의원들도 활용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출마 희망자들의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 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행사를 열었다.

대구 동구를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오후 대구의 한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또 경남 김해갑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 힘 김경권 전 의원은 오후 가야대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민주당에서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17~19대 3선 의원을 지낸 김진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이날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주 들어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는 하루에 10여건씩 열렸다. 제3지대 신당인 ‘한국의회망’을 창당한 양향자 대표는 전날 국회 의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오후 강남구에서, 세종 출마



출판기념회 연 조응천

예정인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날 저녁 세종시에서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총선 인재로 영입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에는 부산 수영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경기 양평·여주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경북 영주·영양·봉화·울

상임위원, 박정현 최고위원이 각각 출판

진에 출마하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

장, 부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했다.

출판기념회 금지 시한을 앞두고 민주

당에서도 지난주 후반부터 북콘서트 등의 이름을 단 행사가 줄을 이었다.

안호영, 민병덕, 최인호, 신정훈, 조응천, 노웅래 의원이 4~9일 잇따라 출판기

념회를 열었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이종걸 전 의원, 전 협회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우영 강원도 당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박정현 최고위원이 각각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지난 7일 출판기

념회를 가졌다. 출판기념회는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

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홍보하고 세(勢)

과시를 하는 동시에 판매 수익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원외에 있는 정치 신인 또는 전직 의원들이 총선 출마의 ‘필수 관문’처럼 출판기념회를 여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들은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접 등을 우려해 출판기념회를 생략하는 대신 의정 보고회를 여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둘 다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서 쓰일 정치 자금, 이른바 ‘실단’을 모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는 달리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모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현역 의원보다 원외 인사들의 출판기

념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통화에서 “현역 의원은 총선이 있는 해당 연도는 예년 한도 액(1억5천만원)의 2배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지만, 원외 인사들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자금을 모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총선 출마설’ 이성윤 검사

“가능성 열려있지만 결정된 것 없어”



작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며 “양평 고속도로, 디올백 등 관련 의혹 모든 것들을 이우르는 김건희 종합특검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 출생인 그는 전주고등학교,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 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전날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 최병호 기자

### 버스·지하철요금 환급 ‘K-패스’ 도입 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법’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 토부는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 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면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 반면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 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 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오문섭 기자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 649만명 받는 국민연금, 이달부터 3.6% 오른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도 같이 올라…기초연금 '33만4천810원'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준보다 3.6% 오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 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서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 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



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

을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5천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을 두고 복지부 관계자는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이 맞다"며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수익금 100조원·적립금 1천조원 돌파

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환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 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전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준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

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0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옮겨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5천원을 받는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부분이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서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대

통령이 특단의 수의를 제고 방안을 말

씀하셨고, 이후로 여러 조치를 해왔다"

며 "수의 제고 방안 등이 준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강석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 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난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남ux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이 이 가운데 1억원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

실에서 전달됐다고 특정하자,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 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날에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씨와 신씨 간에 이뤄졌고,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자료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 송진영 기자

**NH농협금융**

**스마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탠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마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히 것이도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털 협력자를 통해 스마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마트업이 인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자산운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 "4천만원 이상 차량 진보료 폐지"는 선거용…부유층 혜택

당정 발표에 시민사회 '비판'…“건보료 수입 감소로 보장성 약화할 것”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석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혜택이 부유층에 쏠릴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면 모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개편 내용은 부유층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는 2022년 개편으로 이미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는데, 이 12만명의 차량 소유주들도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입게 됐다"며 "1천400만명이 넘는 지역가입자 중 이 12만명은 부유층"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지난 5일 잔존가치가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제외)에 대해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얼핏 보면가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한 일부 부유층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재산보험료 공제금액 확대와 관련해서도 "부유층과 함께 서민의 부담도 줄어들겠지만, 재산이 적은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2018년과 2022년 두차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월 1만9천780원을 부담하는 최저보험료가 신설됐는데, 이 제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저소득자는 공제금액을 늘려도 보험료 부담이 변함없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9천831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며 "수입이 감소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도 전날 논평을 통해 "재산 축소와 자동차 보험료 폐지는 '소득 중심 부과'라는 일관된 정책 실행의 일부분인데 당정이 4월 종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식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부과제도 개선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여당과 정부에는 결정할 권한은 없다"

며 "부과 체계 개편을 여당이 준비했다는 발표는 건강보험 제도의 숙의 과정과 가치를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재일 기자

# 민주, 비명 3인방 탈당 비난 기류…“원칙과 상식? 공천과 탈당”

친문계는 아쉬움 토로…“국민 원하는 건 분열 아닌 통합”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10일 탈당하자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당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 등이 개인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칙과 상식? 공천과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들을 향해 “당내에서 기득권을 누릴 만큼 누린 정치인”이라며 “아이러니한 건 이분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며 탈당을 예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 의원

고해오다 홀로 민주당 잔류를 택한 윤영찬 의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에 “현근택 나가면 되는 거였나. 원칙과 상식의 기준이 공천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이 공천 여부가 불안

해 탈당을 고민하다 지역구 당내 경쟁자가 공천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생기자 잔류한 게 아니라는 주장으로 읽힌다.

중재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일부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도부 안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열과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의 정치”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비난보다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의 혁신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최형석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우 원내대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접두사를 입혀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與,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신중 기류…여론 주시 속 고심

여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10일 여론을 주시하며 고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쌍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돼 조만간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지만,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실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 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건의 및 행사 방침 을 밝힌 것과 달리 신중한 모습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특별법 자체에 문제 가 많다고 보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없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유관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야당의 일방통 행적 입법 과정에 대한 견제 정치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다.

참사 이후 특별수사본부 수사나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과정 등에서 상당한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또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특조위에 대통령 인사권을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에도 어긋난다고도 판단한다.

국민의힘 역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야당의 ‘총선용 입법 폭주’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지만, 거부권 건의 여부를 쉽게 결론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창원에서 열린 경남 도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우리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쌍특검법에 이어 며칠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은 데다 159명이 숨진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는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 역풍 가능성은 우려하며 이번에는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 양희승 기자

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문제 제기한 겸직 허가 사용에 대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던 회사와 협의해 강사 겸직을 하는 대신 이름을 가명으로 해달라고 해 가명으로 수업했다. 과거에도 모 판사가 가명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겸직 허가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 체육민 기자

## 강기정·홍준표 “총선 정국 돌입 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해야”

공동입장문 발표…“법사위 상정 무산, 국회 입법권 포기한 직무유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회는 총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시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라며 “달빛철도 특별법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정사상 최다인 261 명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임시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오매불망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1천700만 영·호남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라고 성토했다. 두 시장은 “특히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사위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시장들은 “동서화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

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히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412회 임시회에서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형철 기자

## ‘이상민 의원과 함께’ 지방의원 4명

15일 국민의힘 입당



지난해 12월 이상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대전 지역 지방의원 4명이 다음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10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조원희·이금선 대전시의원과 송재만·이명숙 유성구의원 등 총 4명의

입당식을 오는 15일 열기로 했다. 입당식은 입당원서 제출, 기초광역의원 인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상민 의원 행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 측에 동반 입당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이상민 의원 기자회견에도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민주당 탈당 후 이 의원 행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환영의 의미에서 입당식을 따로 마련했다”며 “지방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나온 17명은 추후 입당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원 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대전시의회 전체 22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0석, 민주당이 2석으로 재편된다.

/ 손혁준 기자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문자도 사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제작 사용한 번호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문의처 080-258-0303  
kt enterprise |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240여개자체 및 기업도입 중 (2023.11월 기준)



#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과다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기소유예…검찰 “마약류 관리 소홀”

배우 유아인(37·본명 염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의사 두 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처방한 혐의를, 다른 세 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의사 A씨는 유씨의 프로포폴 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아인

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헬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

고지적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이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종독 판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유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다.

/ 최규성 기자



##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얹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을 먹이는 행위를 주도한 사회복무요원 B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사회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만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2~3심에서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 소현주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22일로 연기

제주지법 “기록 검토에 시간 더 필요”…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에서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 남희철 기자

## “임혜동이 공갈 협박” 김하성, 두 번째 고소인 조사받아

술자리 폭행·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28)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9일 경찰에 출석해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6일 첫 고소인 조사 뒤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애초 유선상으로 보충 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씨가 이달 출국을 앞두고 직접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참여했다. 임씨는 지난달 21, 22일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서 얻은 자료 중 사건 관련 자료를 임씨 입회하여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임씨로부터 지속해서 혐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장호진 기자

검찰은 A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사회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 에너지 절약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 유인 달 탐사선 올해 못뜨나…“NASA, 아르테미스Ⅱ 연기 예정”

### 아폴로 이후 첫 인간 달궤도 진입 내년 이후로 연기

달 궤도에 올해 사람을 다시 보낸다는 미국의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2단계 계획(아르테미스Ⅱ)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애초 NASA는 아르테미스Ⅱ를 통해 올해 11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냈다가 지구로 귀환시킬 계획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이 1972년 중단된 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인간을 달 궤도에 다시 보내는 임무로 주목을 받았다.

소식통들은 아르테미스Ⅱ가 수개월 연기될 것이라며 2025년 전에는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NASA 감사관실은 작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인간을 달 궤도에 안전하게 보내려면 반드시 해결할 3대 난제가 있다며 연기를 시사했다.

첫 번째 문제는 거대한 로켓을 제작, 이



아르테미스Ⅱ 임무에 투입되는 우주 비행사들

동시기고 띄우는 데 사용되는 지상 구조물이 아르테미스Ⅰ(1단계) 발사 때 예상보다 크게 손상됐다는 점이다.

NASA 감사관실은 해당 구조물에 대한 수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두 번째 문제는 비행사들이 탑승할 우주선 오리온이 아르테미스Ⅰ에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부식됐다는 점이다.

캡슐 형태의 오리온은 달에 갔다가 지

구 대기에 재진입할 때 태양 표면온도의 절반에 달하는 고온에 노출됐다.

마지막 문제는 오리온을 비행사들에게 적합하게 준비하고 전력과 추진력을 제공하는 유럽서비스모듈에 통합하는 작업이다.

NASA는 이를 기본적으로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으며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르테미스Ⅱ는 아르테미스Ⅰ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그 성과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NASA는 2022년 비행사 대신 마네킹을 태운 오리온을 시험 삼아 달 궤도에 보냈다가 지구로 다시 데려왔다.

미국은 달이 심우주로 나아갈 교두보 이자 자원의 보고로 재부각됨에 따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야심 차게 추진해왔다.

아르테미스Ⅱ에서 비행사 4명은 10일 동안 비행하며 달을 지나 지금까지 인류가 기본 적이 없는 우주 공간까지 다녀올 예정이다.

NASA는 아르테미스Ⅱ를 토대로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 표면에 다시 인간을 보내는 아르테미스Ⅲ(3단계 계획)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르테미스Ⅲ는 애초 2025년으로 예정됐으나 이번에 아르테미스Ⅱ가 연기됨에 따라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커졌다.

/ 강승균 기자



풀란드 국경에서 불법이주 단속하는 독일 경찰

### 독일에 지난해 35만명 난민 신청

#### 1년 새 51% 급증…시리아·터키·아프간 순

유럽 최대 난민 수용국인 독일에 지난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주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이민난민청이 8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망명신청자는 35만1천915명으로 2022년에 비해 51.1%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 신청한 사람은 32만9천120명이었다. 전체 망명 신청자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10만4천561명이 시리아 국적이었다. 터키(6만2천624명)와 아프가니스탄(5만3천582명), 이라크(1만2천360명), 이란(1만206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을 회원국이 분담해 받아들이는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함에 따라 독일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난민 신청자가 지난해 11월 3만5천316명에서 12월 2만2천25명으로 감소한 데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최근 몇 주 동안 난민 신청자를 줄이려고 애썼지만, 야당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 최현종 기자

### 러 크렘린궁, ‘北 미사일 사용’ 의혹에 “노 코멘트”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공급받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특별군사작전’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미국의 발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논평 없이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4일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고 그중 일부를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크라

이나는 북한산 미사일로 추정되는 잔해를 공개하기도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공급받은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며 화살을 우크라이나와 서방으로 돌렸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습했을 때, 러시아는 체코산 벤파이어 로켓과 접속탄이 공격에

이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벨고로드 공습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권이 민간인을 겨냥해 접속탄으로 도심을 공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우리 군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현승 기자

### 인니 경찰, 대대적 마약단속…“4개월간 2천500여명 체포”



인도네시아 경찰이 최근 4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2천500명이 넘는 마약사범들을 체포했다고 안타라 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수마트라주 경찰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북수마트라주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실시, 마약 밀매 관련 조직원 2천19명과 마약 복용 혐의자 529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메스암�타민 307.7kg과 마리화나 409.4kg, 엑스터시 알약 4만7천196개 등을 압류했다. 또 현

금 3억200만 루피아(약 2천570만원)와 대마 6만5천그루, 승용차 37대 등도 압수했다.

북수마트라 경찰청 대변인 하디 와후디는 “마약 밀매를 억제하기 위해 항구와 공항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에도 마약 밀거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마약 시장 규모는 66조 루피아(약 5조6천억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과 과학연구소(LIPI)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마약 복용자는 340만명이 넘으며, 15~64세 기준 인도네시아인 1만명 중 180명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유정 기자

###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 “정신적으로 세르비아와 한몸”

#### “독립 원하지만 전쟁 기억이 생생해 주저”

발칸반도 서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하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지도자가 분리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민 대다수가 세르비아계로 구성된 스릅스카공화국(RS)의 밀로리드 도디크 대통령은 전날 RS 수도 반자 루카에서 AFP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도디크 대통령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은 이미 세르비아에 정신적으로 통합돼 있다”며 “이들은 보스니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이 독립을 원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아직 전쟁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독립을 주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독립의 발판이 마련된다면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스니아는 보스니아계(이슬람), 세르비아계(정교회), 크로아티아계(가톨릭)가 뒤엉킨 인종, 종교 간 갈등으로 1992~1995년 최소 10만 명이 숨지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었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개입으로 1995년 12월 종전협정(데이턴 협정)이 체결됐다.

데이턴 협정에 따라 RS는 보스니아·크로아티아계로 구성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과 함께 1국가 2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복잡하게 얹힌 민족·종교 간 갈등을 고려해 지역·권력을 분점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도디크 대통령은 2021년부터 RS가 완전히 독립해 민족·종교가 같은 세르비아로 합병돼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도디크 대통령은 데이턴 협정에 따라 중앙 정부에 이관된 권한을 되찾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RS 영토에 있는 국유 재산 처분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AFP는 전했다.

/ 양희진 기자



자연을 즐기며 행복을 찾는 일  
자연을 지키며 내일을 여는 일  
이 모든 것을 위한 우리의 물음

즐거운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복쉼터

**강원랜드의  
선한 물음은 계속됩니다.**

2050 탄소배출ZERO화 | 폐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



NH농협금융

#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 연금



##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말정산 세액공제엔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신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004호(2023.10.27~2024.10.26)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 삼성전자 작년 반도체 불황에 영업익 6.5조원…실적 개선 흐름

## 작년 4분기 영업익 2.8조원…감산효과·메모리회복에 반도체 적자 축소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업황 바다를 통과하면서 15년 만에 가장 적은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실적은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작년 4분기 실적은 최근 높아진 시장 전망치를 밟들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조5천4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은 258조1천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8%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밟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의 6조319억원 이후 15년 만이다.

이는 반도체 실적 부진 영향이 크다. 반도체 불황 여파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12조원대 적자를 냈다.

다만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03% 줄었다. 매출은 67조원이었다. 분기별로 보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6천400억원을 시작으로 2분기 6천700억원, 3분기 2조4천400억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늘었다.

그러나 4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컨센서스) 3조9천608억원을 29.3% 하회, 최근 들어 높아진 실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 실적을 발표한



면서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메모리 반도체 시황 회복으로 DS 부문

메모리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과잉 재고 소진되면서 주력인 반도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메

### ‘영업익 10조원 미만’ 15년만…매출은 258.2조원

### “업황회복·AI반도체 수요 등으로 올해 실적 지속개선 관측”

것으로 보인다.

전 분기 대비 메모리 출하량이 증가하고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하면서 DS 부문 적자 폭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DS 부문 분기 영업손실은 작년 1분기 4조5천800억원, 2분기 4조3천600억원, 3

모리 감산을 공식화했으며, 하반기 들어

감산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며 시작했다. 다만 감산 확대에 따른 고정비 증가 여파로 반도체 적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을 가능성

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영민 다و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까지의 감산에 따른 단위당 원가 증가로 인한 고정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작년 4

분기 매출 확대 폭보다 이익 개선 폭은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다른 사업부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모바일과 가전을 포함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2조원대, 삼성디스플레이(SDC) 2조원 안팎, 하만 4천억원 등이다.

SDC는 스마트폰 주요 고객 플래그십 수요 강세 지속과 2024년 신제품 수요 대응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DX 부문은 TV와 가전의 수요 회복 지연과 경쟁 심화, 스마트폰 출하가 감소하는 4분기 특성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감익이 추정된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두고 “메모리 부문 적자가 축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낸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적자 축소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MX 부문은 플래그십 효과 축소로 전 분기 대비 물량과 가격 모두 감소 및 하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삼성전자 실적은 지속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증권가에서 제시한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35조원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 ‘AI폰’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 전망은 밝은 편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작년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 송원기 기자



입장문 발표하는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

## 태영, SBS미디어넷도 활용 산은 “추가 자구안에 긍정적”

태영건설 주체권은행인 산업은행은 9일 태영그룹이 내놓은 추가 자구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핵심 계열사인 에코비트 등 주요 계열사 매각 또는 담보 제공을 골자로 한 기존 자구계획 이외에 부족할 경우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자구안에는 시장가치 2천억~3천억원 상당의 SBS미디어넷 등 다른 계열사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SBS 지분 담보 제공과는 별도의 안으로, 에코비트 등 계열사 매각 전까지 최소 500억~1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SBS 지분을 필요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

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집행분 890억원을 어제 태영건설에 대여함으로써 정상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며 “계열주가 오늘 발표한 방안은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되면 채권자협의회는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즉시 개시해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고, 추진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채권단은 대주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단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는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태영 측에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종료된다는 뜻으로, 산은 측은 큰 의미 있는 자구안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박성준 기자

**DB손해보험**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까

약속하기 잘했다!

함께,약속 DB손해보험

## 경제 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에 참담”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 김지영 기자

## 창원 한 국민임대 아파트 주민 “입구 설계 잘못돼 12년간 고통”

### LH “건설 당시 법령과 관련 기준에 맞게 설계…방안 강구 중”

경남 창원시 한 국민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 설계가 잘못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창원봉립휴먼시아206동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9일 창원시 의창구 해당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은 아파트 설계 오류로 지어진 아파트 입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2011년 7월 입주가 시작된 해당 아파트 206동 인근에는 놀이터와 인도가 조성돼있지만, 지상 주차장은 없다.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데 정작 지하에 206동 입구로 가는 엘리베이터도 없다.

그래서 206동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서 계단을 3층이나 더 올라가야 한다.

계단을 통해 아파트 입구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층 등은 지상으로 나와 입구까지 이동한다.

이 거리도 매우 길어서 주민 불편이 크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아파트) 다른 동은 주차장 또는 도로에서 입구까지 2m 정도 거리이지만 206동은 50m가 넘는다”며 “긴급 출동한 구급차가 206동 입구를 찾지 못해 몇십분을 헤맨 일이 세 번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주민 민원에 LH는 돈이 없다며 주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LH는 해당 아파트 부실 설계를 사과하고 주민 생명과 안전에 담보될 수 있는 출입구를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이 끝나고 LH 경남본부에 LH 사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등을 전달했다.

LH 관계자는 “건설 당시 법령과 관련 기준에 맞게 설계됐다”며 “주민 불편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가 구조체 변경이 불가능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종현 기자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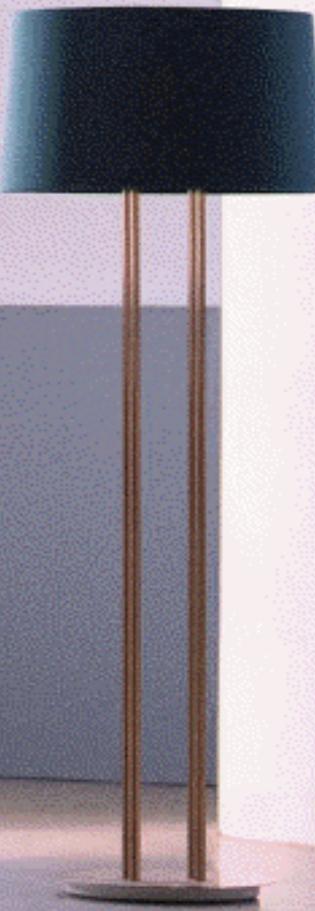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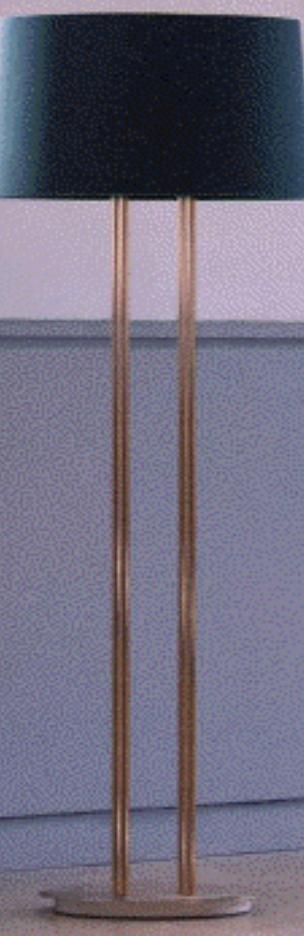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신의길 제[2023-3946호] (2023.08.29) 유효기간[2024.06.28]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리를 활용을 막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 blkethics@ibk.co.kr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설계공모 ‘잡음’…지역미술인 “재공모하라”

### 미술계 “세계 유명 건축가에 맡겨야”…광주시 “절차상 하자없어”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설계 공모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예술계 인사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국제 공모로 전시관 설계작을 선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원로미술인과 전 시립미술관장·미술협회장, 광주민예총, 광주민미협 등은 9일 광주 예술의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를 재공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결정한 당선작은 세계 미술계의 관심을 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비엔날레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참신성과 실험성도 크게 부족하다”며 “건축이 1~2년 늦어지더라도 세계적 위상을 갖춘 건축가에 의한 지명공모로 설계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 공모 기간이 떡없이 짧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설계 재공모 촉구

외국의 유명 작가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출속으로 추진됐다”며 “지역 미술인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공모가 진행돼 분노를 참을 길 없다”고 강조했다.

미술인들은 또 “재공모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민 대상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미술인들의 ‘재공모’ 주장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 등에 따라 72일간 공모를 했고, 지역 미술계 원로가 포함된 비엔날레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도 두차례 청취했다”며 “지명공고를 하려면 6~9명을 지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기준을 두고 논란

이 있어 국제 공모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사 공정성을 위해 대한건축가협회에 심사를 의뢰해 당선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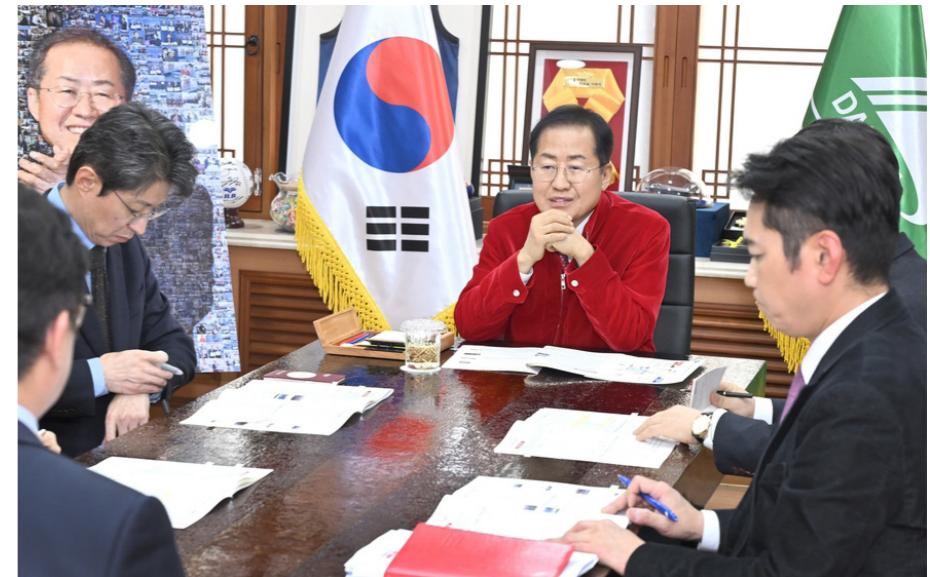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시민이 자유롭게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지하에 기획전시 플랫폼, 지상 1층에는 레스토랑·카페테리아·아트카페·학습공간·교육공간·다목적 상영관을 배치했다.

2층 열린 광장, 3층 자료실과 학예연구실, 4층 상설 전시관 조성을 구상했다.

당선작에 선정된 건축사무소는 이달 중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새 전시관은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인 북구 매곡동 3만4천925㎡에 총사업비 1천182억원을 투입해 전시관 연면적 2만 2천776㎡, 주차 면적 9천500㎡ 규모로 지어져 2027년 개관할 예정이다.



### 대구시, 용역 적정성 심의제 도입 “사업 지연 차단”

대구시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 적정성 심의제’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공직 사회 내부에 용역 만능주의가 팽배한 것으로 판단, 이 제도를 도입해 매년 초에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기간을 사전에 따져보기로 했다.

또 주요 핵심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3색 교통 신호등 개념을 적용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흥준표 시장 주재로 지난 8일부터 본청 실·국, 사업소, 산하기관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또 구·군,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던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위군 편입에 맞춰 산림재해 예방 기능을 보강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대행자(SPC) 선정은 상반기 중으로, K-2 후적지 도시계획 세부 계획 마련은 4월까

지 각각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같은 대구 5대 미래 신산업 중심의 신기술 발표, 전시회가 열리는 대구판 CES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흥 시장은 오는 7월 동성로가 광특구로 지정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버스킹(길거리 공연)에 나서는 한편 청년 버스킹 활성화와 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동성로 브네상스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립예술단이 주말에 정기적으로 신천에서 야외 공연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홍명섭 기자

###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으로 하동 행복택시 70개 마을로 확대

경남 하동군은 올해부터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기존 61개에서 70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나 병원, 시장 등을 방문할 때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마을은 하동읍 고서마을, 횡천면 횡계·횡보마을, 금남면 사궁마을, 금성면 명선·가린마을, 진교면 신기마을, 양면면 병곡마을, 옥종면 병천마을이다.

행복택시는 작년 한 해 동안 5만5천 140명이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하승철 군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군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교통 복지를 위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이석호 기자



### 길위의 전동킥보드 신속 수거…송파구 전국 첫 통합신고시스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길 위에 난립한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에 대한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 누리집에 구축하고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공유모빌리티 시장이 커지면서 이들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021년 7월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시에 접수된 견인 민원은 19만건이며, 전기자전거는 견인제도 조차 전무한 실정이 고려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 호적에 없는 제주4·3희생자 친생자·양자도 국가 보상받는다

제주4·3희생자의 제적부(옛 호적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실증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친생자, 양자도 복합한 소송을 하지 않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4·3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중앙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난 희생자의 자녀는 그간 서류상 친척의 자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희생자의 생전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장남인 희생자가 사망한 후 가계를 잇기 위해 사실상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된 희생자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제사·분묘 관리를 했던 사람도 법률상의 양자로 신고할 수 있다.

호주의 희생 이후 호적부에 입적한 사후 양자라면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사후 양자 입적 시기 등의 요건과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민법 개정으로 사후 양자 제도가 사라진 1991년 1월 1일 이후 양자로 입적

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생부·생모가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제기하는 소) 특례기간은 2년 연장된다.

인지청구 특례는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4·3 당시 희생자의 호적부에 오르지 못한 친생자들이 친자 확인 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가족 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 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를 제기할 근거도 신설했다.

이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됐다.

/ 채규성 기자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02.16 - 25 BEXCO BUSAN KOREA**

**BUSAN 2024**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세상을 바꾸는 금융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더 많이 달려가야죠”

전북 김제 희망남포작은도서관 오윤택 관장 (62세)

바닷가 시장

생선을 잡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내가 힘들어도 더 많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트럭을 어렵게 마련해 ‘달리는 도서관’을 만들고

많은 분들로부터 책을 기증받아

놀이터, 시장, 바닷가 마을까지

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책이 필요한 더 많은 곳에 찾아가고 싶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다섯번째 이야기 ☺

**To BOOK continued****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 대학 3곳중 1곳은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대부분 지방대



종로학원 2024 수능 가채점 설명회

최근 마감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미달'을 기록한 대학이 30%를 넘어섰다.

종로학원은 전국 188개 대학의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했더니 전국 평균 경쟁률이 4.67대 1로 지난해(4.61대 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9일 밝혔다.

### 경쟁률 3대 1 이하 59곳…비수도권이 88% 차지 평균 경쟁률 '서울 5.8대 1 vs 비수도권 3.6대 1'

대 3개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원가에서는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들은 중복합격자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올해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줄이고, 지역 교대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 숫자가 작년에 비해 줄었다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이들 59개 대학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4곳, 경인권이 3곳, 비수도권이 52곳이었다. 비수도권 비율이 88.1%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경쟁률 3대 1 이하인 대학은 59곳(31.4%)으로 지난해(66곳)에 비해 다소 줄었다.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수험생 1명이 최

눠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은 평균 경쟁률이 5.79대 1, 경인권은 5.96대 1이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3.57대 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 대학의 경쟁률이 평균 1.88대 1로 가장 낮았고, 광주(2.39대 1)와 경남(2.84대 1)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6.32대 1)이었고, 경기(5.89대 1)와 서울(5.79대 1), 세종(5.70대 1)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경쟁률이 3대 1 이하인 대학들은 중복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감안할 경우 추가모집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정시 추가모집은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최진성 기자

##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 첫발

부산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가 가능해졌다. 2009년부터 도심 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온 부산시는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고 지상 구간을 공원화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졌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의 도심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해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 계로는 추진 자체가 어렵고 막대한 사업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철도 지하화 추진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는 100만 명 국민서명운동, 시민 대토론회, 결의대회 등으로 부산 도심 철도의 시 외곽 이전을 위해 힘써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선 2026년부터 관할 자체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노선을 반영해 사업화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시는 경부선 지하화 구간 개발 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개발구상, 실행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서부산 거점 통합역 개발, 광역교통 환승 체계구축, 유류부지 개발, 단절 공간 숲길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 구간의 임체적인 도시개발로 100년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 미래의 길을 잊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농어촌· 좋은 학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방문 및 간담회

2024. 1. 9. (화) 상수초등학교



## 경기교육청, 접경지 8개 시군

###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조건을 갖춘 경기지역 8개 시군의 특색

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 발굴에 나서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제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소위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접경지역인 가평·

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추진단을 꾸려 해당 지자체와 주민 상황을 공유하고 모델 발굴 컨설팅을 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양주의 상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지역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수현 양주시장을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공교육이 변화해서 더 이상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 서민재 기자

## 5·18 조사위 "해남서 발굴 유해 3구, 행불자 DNA와 불일치"



전남 해남서 신원미상 유해발굴

신고된 242명 중 182명의 가족·사촌 등 448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대조 분석을 했지만 해남에서 발견된 유해와 일치하는 DNA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5월 항쟁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군 관계자 3명의 일치된 제보를 받아 지난해 5월 해남 군부대 일대에서 3구의 유해를 발굴해 그동안 유전자 분석 작업을 해왔다. 제보 내용과 실제 발굴된 유골의 매장 방식, 매장된 유해 기수가 같아 5·18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불자와 일치하는 DNA가 없다고 해서 발견된 유해 3구가 5·18과 관련해 암매장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조사 자료를 그대로 자료화해 보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사위 관계자는 "5·18 행불자로

/ 노승윤 기자

## 강원도립대, 베트남 대학들과 우수 인재 확보 협약

강원도립대학교는 9일 베트남 하노이 의학기술전문대학과 하노이 국제전문대학을 방문해 우수 인재 확보 협약식을 열었다. 도립대는 이들 학교와 교육·문화 분야, 학생·교수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노이 의학기술전문대학은 간호학과를 비롯해 14개 학과 1천여명이 재학 중이며 하노이 국제전문대학은 한국어과 외 18개 학과 재학생 5천여명으로 구성됐다.

김광래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학생 유치로 인구 소멸의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더불어 해외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립대-하노이국제전문대학 업무협약

도립대는 오는 12일까지 상호 국제협동연구 등을 위해 베트남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 백경준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은행 · 카드 · 증권 · 보험  
신한의 모든 금융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 신한 슈퍼SOL 탄생!

Congratulations!  
Super SOL

신한 Super SOL

QR code

## 류현진, 후배들과 오키나와서 몸만들기 시작…올해도 변함없이

친한 후배 장민재 등과 2주 동안 맹훈련…소속 팀 없이 차분하게 새 시즌 준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이 올해도 변함없이 '친정 식구'들과 새 시즌을 준비한다.

2023시즌을 마치고 귀국했던 류현진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8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장민재, 남지민, 김기중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

네 명은 9일부터 오키나와 현지에서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나선다. 이들은 약 2주 동안 컨디셔닝, 체력, 웨이트 트레이닝 등 기초 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화 투수 이태양과 이민우도 오키나와에서 따로 훈련하다가 추후 합류한다.

류현진은 2016년부터 매년 한화 후배들과 오키나와, 제주도, 거제 등에서 비시즌 훈련을 했다.

한화 소속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친한 후배 장민재는 매년 '류현진 캠프'에 참가했고, 김민우, 이태양, 김진영 등 많은 후배가 돌아가면서 합동 훈련을 했다.



올해는 장민재의 소개로 남지민, 김기중이 류현진과 함께 훈련하게 됐다.

류현진은 매년 숙박비 등 후배들의 훈련 비용을 책임졌다. 올해도 류현진은 후배들을 위해 사비를 털었다.

올해 해외 훈련은 무적(無籍) 선수로 임한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류현진은 매년 소속 팀이 있는 상태에서 새 시즌을 준비했다.

2019년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이 만료된 뒤 그해 12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기간 4년, 총액 8천만 달러에 도장을 찍고 훌륭한 기분으로 오키나와에서 국외 훈련을 했다.

올해 류현진은 처음으로 소속 팀 없이 개인 해외 훈련을 시작했지만, 예년과 달리 차분하고 조용하게 새 시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오키나와 훈련에서도 행선지에 관한 고민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잔류를 선순위에 놓고 한화 복귀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분위기라면 MLB 구단과 계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MLB FA 시장은 선수들의 몸값이 솟구치는 분위기라 국내 복귀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류현진의 기량도 MLB 구단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류현진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후 복귀한 2023시즌 변함없는 기량을 펼쳤다.

11경기에 등판해 3승 3패 평균자책점 3.46의 성적을 올렸다.

/ 최준용 기자



## 남자배구 KB손해보험, 갈 길 바쁜 대한항공 잡고 6연패 탈출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대한항공을 잡고 6연패 수렁에서 탈출했다.

KB손해보험이 9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3-2024 V리그 홈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세트 점수 3-1(25-14 29-27 14-25 25-22)로 꺾었다.

KB손해보험이 4세트 13-13에서 비애나의 퀸 오픈과 황경민의 다이렉트 킬이 터졌고, 황경민은 기세등등하던 임동혁의 백 어택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리고 비애나가 오른쪽 사이드라인에 걸치는 절묘한 서브 에이스를 터뜨렸다.

대한항공이 16-20에서 22-23까지 따라붙었지만, 뒷심이 조금 모자랐다.

비애나의 백 어택은 상대 블로커 손에 맞고 떨어졌고, 임동혁의 백 어택은 네트를 맞고 코트를 벗어났다.

이날 비애나는 양 팀 최다인 30점을 책임졌고 황상혁(13점)과 한국민(9점)이 도왔다.

대한항공은 임동혁(29점), 정한용(18점), 정지석(10점)이 잘 싸웠고, 공격 득점 통산 3만4천점을 달성했으나 패배로 빛이 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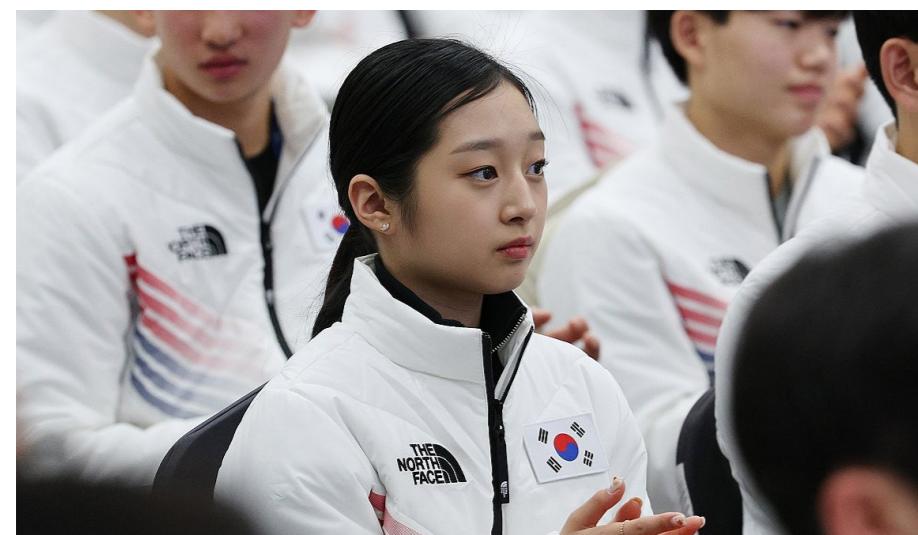
경기도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IBK기업은행에 세트 점수 3-1(24-26 25-17 25-14 25-17)로 역전승했다. 승점 3을 보탠 한국도로공사(승점 22·7승 15패)는 리그 6위를, 승점을 얻지 못한 IBK기업은행(승점 32·11승 11패)은 4위를 유지했다.

이날 블로킹 철벽을 가동한 한국도로공사는 가로막기 싸움에서 IBK기업은행을 9-3으로 제압했다.

/ 황민주 기자

## 피겨 신지아 “평창올림픽 경기장서 연기…설레고 벅차”

강원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열흘 앞두고 다부진 각오



음”이라며 “선수촌 입촌 등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외국 선수들과 우정을 쌓고 싶다. 많이 설렌다”라고 배시시 웃었다.

신지아는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달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출전해 우승한 뒤 곧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땄다.

지난 7일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나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쉴 틈은 없다. 신지아는 오는 19일 개막하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나선다.

청소년올림픽은 경쟁보다는 화합과 우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메달 순위를 집계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신지아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의 ‘간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신지아는 “부담과 (좋은 성적에 관한) 욕심이 없진 않다”라며 “그러나 좀 더 내 경기애에 집중해 목표인 클린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지아는 이번 대회 피겨스케이팅이 열리는 강릉아이스아레나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2018년 부모님과 함께 강릉아이스아레나를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올림픽 출전의 꿈을 키웠다.

신지아는 “평창올림픽 이후 강릉아이스아레나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 경기장에서 연기하게 돼 설레고 벅차다. 더 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지아가 출전하는 피겨 싱글 쇼트프로그램은 28일, 프리스케이팅은 30일에 열린다. 2월 1일에 펼쳐지는 피겨 단체전 출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현정 코치는 “주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손현수 기자

Wishing you a  
HAPPY NEW YEAR

2024

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건강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 지승현 “양규 장군 활약 ‘고려거란전쟁’으로 알려 뿐”

“데뷔 18년 만에 연기상…진심 다했던 드라마로 기억될 것”

“‘고려거란전쟁’을 통해 양규 장군의 활약을 알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로 ‘양규 장군이 지승현을 살렸다’고 적어주신 걸 보고 소름이 돋았죠. 제가 진심으로 임하면 보답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배우 지승현은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고려거란전쟁’은 거란(요나라)이 고려를 침공한 총 세 차례의 여요전쟁 가운데 고려 8대 국왕인 현종 대에 벌어진 2·3차 전쟁을 다룬 드라마다. 총 32부 가운데 16부까지 방송됐다. 특히 지난 7일 방송된 16회는 거란군이 물려가면서 2차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 과정에서 양규가 퇴각하는 거란 황제를 없애려고 분전하다가 전사하는 모습이 다뤄졌다.

지승현은 이 장면에서 거란군의 칼에 갑옷이 뜯겨나가고 화살에 몸이 뚫리면서도 거란 황제를 겨냥해 화살을 쏘다가 선채로 숨을 거두는 비장한 양규의 모습을



연기했다.

지승현은 “양규 장군을 연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양규 장군의 활약을 알려 뿐만 아니라 인물인데도 사료들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는 양규 장군의 초상화가 있다면 보고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스스로 ‘양규 흥보대사’를 자처하며 그의 활약에 관한 여러 기록을 찾아봤다고 한다. 국궁을 능숙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고 손을 놓고도 말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승마 연습에 매력이 있다. 그는 인터뷰 도중 국궁을 다루는 방

는데 큰 뜻을 했다.

지승현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인물인데도 사료들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는 양규 장군의 초상화가 있다면 보고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스스로 ‘양규 흥보대사’를 자처하며 그의 활약에 관한 여러 기록을 찾아봤다고 한다. 국궁을 능숙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고 손을 놓고도 말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승마 연습에 매력이 있다. 그는 인터뷰 도중 국궁을 다루는 방

법을 손짓을 섞어 자세히 설명하면서 열정을 드러냈다. 이런 배우의 노력에 힘입어 ‘고려거란전쟁’은 최고 10%를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양규 장군이 전사한 장면의 순간 시청률은 11%까지 치솟았다.

‘고려거란전쟁’은 기존의 대하사극에 비해 사실감과 규모감을 크게 키워 사실감을 높였다. 옛 사극에서 칼에 제대로 달지 않고도 피를 뿐으며 숨지는 식으로 전투 장면을 연출했던 것과 달리 ‘고려거란전쟁’은 수없이 쏟아지는 칼날에 양규의 갑옷이 조금씩 뜯겨나가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묘사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승현은 “이 장면을 찍는 데 3일이 걸렸고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영화 10도를 밀도는 흑한에 활영하면서 부상자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또 “고생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 시기 실제 백병전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그런 장면을 보여드린 것은 지금까지 사극을 통틀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 신지숙 기자



배우 손예진과 현빈 부부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와 미혼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손예진의 소속사 앤미스팀엔터테인먼트는 손예진과 현빈이 작년 말 서울 아산 병원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 박스에 기부금을 전했다고 9일 밝혔다.

아산병원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치료비로 쓰이고, 베이비박스에 전달된 기부금은 미혼모 가정과 자립이 필요한 아이들을 돋울 때 쓰인다.

손예진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아이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예진은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돋기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했고, 2022년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는 주민을 위해 현빈과 공동으로 성금 2억원을 냈다.

/ 조유진 기자

## 조진웅 스릴러 ‘데드맨’ 설 연휴 개봉

‘도그 데이즈’와 맞대결

조진웅·김희애 주연의 스릴러 영화 ‘데드맨’이 설 연휴 이를 전인 다음 달 7일 개봉한다고 제작사 팔레트피쳐스가 9일 밝혔다.

‘데드맨’은 같은 날 개봉하는 윤여정·유해진 주연의 휴먼 드라마 ‘도그 데이즈’와 맞대결을 펼친다.



‘데드맨’은 1천억원 획득 누명을 쓴 채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남자가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다.

조진웅이 전설적 바지 사장에서 하루 아침에 ‘데드맨’이 된 만재를 연기했다. 김희애는 타고난 지략으로 정치판을 휘락펴락하는 최고의 컨설턴트 십여사 역을 소

화했다.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

각본을 공동 집필한 하준원 감독의 연

출 데뷔작이다. 하 감독은 ‘펭귄’(1985),

‘태’(1986)를 연출한 하명중 감독의 아들

이자 ‘바보들의 행진’(1975)으로 유명한

허길종 감독의 조카다.

/ 김희정 기자

## 주현영 “실제로는 조용한 편…연기할 때 제 모습은 내려놓죠”

사극 ‘열녀박씨’ 속 발랄한 사월 역으로 신인상…“무게감 느껴”



문을 건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캐릭터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카메라 앞에서 (배우 본인이 아닌 캐릭터로) 돌변하기 어려운데, 선배님들을 보면 실제 성격과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저 역시 그런 직업의식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밝혔다.

주현영이 ‘열녀박씨’ 속 사월이라는 캐릭터로 2023년 MBC 연기 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주 기자’로 갑작스럽게 주목받은 이후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주현영은 “초반 SNL에 합류했을 때는 열정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했었는데, 점점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털어놨다.

주현영은 ‘열녀박씨’ 속 사월이라는 캐릭터로 2023년 MBC 연기 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주 기자’로 갑작스럽게 주목받은 이후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주현영은 “초반

##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천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이

**SAMSUNG**

# Galaxy S23 FE

FE를 갖는 세상에 없던 구매방식

perFEct 프로그램

[samsung.com](http://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색상과 모델은 국가 또는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erFEct 프로그램] \*혜택: KT 단말 약정 24개월 & 69이상 요금제 선택 시 공시지원금 받고 가입 및 개통 시 단말기 대금 84만 7천원 중 42만 4천원 즉시 할인, 24개월 후 S23 FE 반납 시 잔여 할부금 중 42만 3천원 부분 납부 (VAT 포함가 기준) \*방법: KTShop에서 주문서 작성 시 'KT폰 구독'-'구독 2년형' 버튼에 체크  
\*자세한 사항은 KT.com 참조 \*perFEct 베네핏은 정해진 기간 내 Galaxy S23 FE를 신규 개통 후 쿠폰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개통: 2023년 12월 8일 ~ 2023년 12월 31일 신청 및 등록: 2023년 12월 11일 ~ 2024년 1월 31일 (개통 D+3일 후 신청 가능, 최초 통화일 기준) \*perFEct 베네핏 각 혜택별  
쿠폰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봉과 쓰레일' 상장기운팩: 2024년 1월 5일 ~ 2024년 6월 30일 CU 크리스마스 디지털 교환권: 2023년 12월 11일 ~ 2024년 1월 31일 CU 디저트 카테고리 50% 할인 쿠폰: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최초 등록하면 매월 사용 가능)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쿠폰 다운로드 문의: 삼성닷컴 프로모션 고객센터(1811-6043, 월~금 09~18시) 쿠폰 등록/사용 문의: 갤럭시 스토어(APP내 문의) | CU 고객센터(1577-8007, 월~금 09~18시)

